상위 10% 집값 14.8억원, 하위 10%의 '49배'…양극화 심화

통계청, '2021년 주택소유통계' 발표
평균 집값 3억7600만원…5200만원↑
상위 10% 집값 증가폭 1억7500만원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상위 10%의 평균 집값은 14억84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억7500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하위 10%의 평균 집값은 200만원 증가하는데 그쳐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1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3억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평균 주택 자산가액 3억2400만원보다 5200만원 올랐다.

주택 자산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구 비중은 39.8%로 2020년(33.3%)보다 6.5%포인트(p) 높아졌다. 비중으로 따지면 소유한 주택의 총 자산가액이 1억5000만원~3억원 구간에 위치한 가구가 24.0%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집을 가진 가구의 평균 소유주택 수는 1.35호이며, 평균 면적은 86.6㎡(26.1평)이다. 평균 가구주 연령은 56.3세이고, 평균 가구원 수는 2.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4억8400만원으로 2020년 13억900만원보다 1억7500만원이나 올랐다. 평균 집값 증가 폭 5200만원보다 훨씬 크게 뛴 수치다.

다만 상위 10% 평균 집값 증가 폭이 2015년부터 통계 집계 이래 매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증가 폭이 다소 줄었다.

이 수치는 2016년 6800만원, 2017년 7000만원, 2018년 9600만원, 2019년 1억2600만원, 2020년 2억600만원으로 매년 증가 폭이 커져왔다. 또한 상위 10%의 평균 소유주택 수는 2.35호이며, 평균 주택면적은 111.0㎡(33.6평)이다. 반면 하위 10%의 평균 집값은 3000만원으로 1년 전 2800만원보다 200만원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들의 평균 소유주택 수는 0.98호로 가구당 집 한 채를 갖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위 10%의 평균 주택면적은 63.0㎡(19.0평)이다.

지난해 상위 10%와 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 차이는 49.46배로 2020년 46.75배였던 것에 비해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택소유통계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10분위별 주택소유 가구수 특성을 보면 남성은 상위 분위일수록, 여성은 하위 분위일수록 많이 분포됐다. 50대는 상위 분위에, 30세 미만은 하위 분위에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상위 분위에 많이 분포됐다.

지난해 주택 소유건수가 늘어난 139만3000명을 성별 기준으로 보면 남성 69만6900명, 여성 69만5800명으로 비율이 50.0%씩 동일했다.

연령별로는 30대 33만4000명(24.0%), 40대 33만2000명(23.8%)으로 가장 많았다. 이른바 '영끌족'으로 대표되던 30세 미만도 12만8000명(9.2%)이 주택 소유건수가 증가해 1년 전 10만8000명(7.6%)보다 더 늘었다.

지난해 주택 소유건수가 줄어든 98만3000명 중에서 남성은 52만1700명(53.1%)으로 여성 46만1600명(46.9%)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이 2만2000명(2.2%)에 그쳤고, 40대 24만1000명(24.5%), 50대 25만3000명(25.7%)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최이슬 기자

생활공작소, 5ℓ 주방세제 출시…'백 인 박스형' 제품

생활용품 브랜드 생활공작소는 5ℓ 대용량 주방세제를 친환경 패키지에 담아낸 '주방세제 백 인 박스'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용량 제품 진공팩 담은 후 종이상자 포장

생활공작소의 백 인 박스형 제품은 지난 7월 선보였던 3ℓ 대용량 핸드워시 이후 두번째다. 백 인 박스는 대용량 액상제품을 진공팩에 담은 후 종이상자에 포장하는 형태다. 필요할 때마다 종이상자 끝에 달려있는 레버를 열고 용액을 덜어 사용하면 된다.

생활공작소는 핸드워시에 이어 주방세제도 백 인 박스 포장으로 출시하며 플라스틱 배출량을 대폭 절감했다.

주방세제 백 인 박스는 5ℓ 주방세제 용액을 기존 사용하던 용기에 간편하게 덜어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5ℓ 용량을 10개로 나눈 기존 500㎖ 제품을 각각 사용할 때에 비해 플라스틱 배출량을 약 90% 절감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1종 주방세제다. 과일과 야채 세정은 물론 유아용 식기·젖병 세척 시에도 사용하기 적합하다. 제품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도 받았다. 베이킹소다 등 천연유래 성분을 함유했다. CMIT(클로로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성분 불검출 테스트도 완료했다.

김재환 기자

글라스락 공식몰 '김치 보관 기획전'

김치 전용 밀폐용기 김장철 맞이 할인전

SGC솔루션이 가을 김장철을 맞아 글라스락 공식몰에서 김치 보관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달 30일까지 진행되는 기획전에서는 '퓨어 핸디', '김치냉장고 공간활용세트', 새미네부엌의 김치 양념이 구성된 컬래버레이션 세트, 대용량 스텐밀폐용기 등 다양한 김치 전용 제품들을 김장 시즌 특가로 제공한다.

글라스락 김치 전용 유리밀폐용기는 색, 냄새 배임 걱정 없는 위생적인 유리 소재로 만들어져 글라스락 공식몰에서도 반응이 좋은 스테디셀러다. 충격과 열에 강한 글라스락만의 내열강화유리 소재로 수분이 많은 주방환경에서 떨어지거나 부딪혀도 잘 깨지지 않는다.

특히 퓨어 핸디는 투명한 뚜껑으로 열지 않아도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고, 손잡이가 있어 무거운 김치류를 운반하기에 편리하다. 김치냉장고 공간활용세트는 소용량 김장 트렌드에 맞춰 준비된 세다. 부피가 큰 김치를 보관하기 좋은 '3.7ℓ(리터)+2.7ℓ' 구성과 부피가 적은 김치 보관용으로 '3.7ℓ+2.0ℓ' 구성이 마련됐다.

오유나 기자

'디 올 뉴 그랜저' 인기 14일 오후 경기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 '디 올 뉴 그랜저'가 전시되어 있다.

홈플러스, 반값 기획전 매출 상승

고물가에 불황형 소비가 뜨고 있다. '플렉스'와 같은 과시형에서 '짠물 소비', '무지출 챌린지' 등 씀씀이를 줄이는 절약형 소비 패턴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다.

홈플러스는 온라인 고객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반값 기획전' 카테고리의 10월27일~11월2일 매출이 행사 첫 주(5월19~25일)와 비교해 23%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기간 대용식 행사 품목 매출은 162% 신장했다. 상품별로는 즉석밥, 간장·고추장, 견과류 등이 매출 상위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먹거리·생필품을 1개 또는 2개 구매 시 50% 할인 판매하는 '반값 기획전'이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이 기간 홈플러스 온라인 매출도 31% 늘었다.

소용량 상품도 인기다. 치솟는 물가에 먹거리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난 탓이다. 최근에는 적은 양의 식사를 즐기는 소식 열풍도 매출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한 달간 홈플러스 온라인 '든든한끼' 샌드위치·요리류 7종, '지금한끼' 비빔밥 3종 등 1인분 델리 품목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616% 급증했다. '한끼 두부' 품목 매출은 138% 뛰었으며, 작은 용기 즉석밥·작은 컵라면 등 대용식 품목 매출도 150% 늘었다. 홈플러스에서는 현재 과일·축산·수산, 두부, 델리, 간편식·면류·대용식 등 90여 종의 소용량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슬비 기자

올해 쌀 생산량 376.4만t…기상 악화·재배면적 감소로 3.0%↓

통계청 '2022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 발표

올해 쌀 생산량이 1년 전보다 3.0% 감소한 376만4000t으로 집계됐다.

쌀 가격 하락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와 태풍 힌남노 등 기상 여건 악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2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76만4000t으로 전년(388만2000t)보다 11만8000t(3.0%) 감소했다.

지난해 6년 만에 쌀 생산량이 증가한 지 1년 만인 올해 다시 쌀 생산량이 감소한 셈이다. 쌀 생산량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388만2000t으로 10.7% 증가한 바 있다.

통계청은 "쌀 가격 하락세와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등으로 올해 벼 재배면적이 감소했다"며 "태풍 힌남노에 따른 풍해, 벼가 여무는 시기에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줄어든 것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쌀 가격 하락세에 따라 올해 재배면적은 72만7054ha로 전년의 73만2477ha보다 0.7% 감소했다.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평균 쌀 도매가격은 20kg 기준 4만9010원(10월)으로 전년(5만7173원)보다 14.3% 하락했다.

벼 낟알이 익는 시기인 등숙기(9월1~10월15일)에 태풍 힌남노 등으로 인한 풍해, 평년보다 낮은 기온 등 기상 여건 악화로 10a(아르·100㎡)당 생산량도 518kg으로 작년 530kg보다 2.3% 감소했다.

시도별 쌀 생산량을 보면 전남이 74만3000t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72만5000t), 전북(62만2000t)이 뒤따랐다. 다만 전년과 비교했을 때 생산량은 전북(4.7%)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1년 풍작과 비교했을 때 올해 쌀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아직 평년 이상의 생산량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스쿨푸드, 맥주 페어링 신메뉴 4종 출시

스쿨푸드가 맥주와 페어링하기 좋은 신메뉴 4종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신메뉴는 ▲청양슈림프 순살치킨 ▲중독양념 순살치킨 ▲빅쓰리 순살치킨 ▲골뱅이무침과 쫄면 등 총 4종이다. 스쿨푸드의 마리와 떡볶이 등 다양한 분식 메뉴와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실속 메뉴로 구성했다.

청양슈프림 순살치킨은 크리미한 청양마요소스에 청양고추 슬라이스가 더해져 알싸한 매운맛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중독양념 순살치킨은 스쿨푸드의 시그니처인 중독 소스로 양념한 메뉴로 매콤하면서 짭짤한 맛을 자랑한다.

빅쓰리 순살치킨은 청양슈프림 순살치킨과 중동양념 순살치킨, 유자쏘이 순살치킨을 더한 메뉴로 총 3가지 맛의 순살 치킨을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함께 출시한 골뱅이무침과 쫄면은 스쿨푸드에서 직접 만든 비법 소스가 사용된 메뉴다. 약 20여 가지 재료가 들어간 소스에 각종 채소, 골뱅이 한 캔을 통째로 버무려 쫄깃한 쫄면과 함께 제공한다.

정승호 기자